

HYUNDAI ISC

발행처 현대아이에스씨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210번길 9
ISC 업무지원팀 032-766-7924

현대ISC의 기둥, 새로운 인재를 환영합니다!

기술직 신규 입사자 43명의 힘찬 출발



약 2개월간의 채용기간을 걸쳐 선발된 43명의 기술직 신규 입사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6월 7일부터 10일간 진행된 기술직 채용공고 후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신체검사와 인성검사를 진행, 그 결과를 종합해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면접에서 최종합격자 4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8월 1일부터 4일간 별관 3층 교육장에서 현대ISC의 인재가 되기 위한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1일차 입사서류 작성 및 피복·안전장구 지급, 회사 소개 ▲2일차 직무교육(각 부서 팀장) 및 신입사원 마인드 함양(외부 초청강사) ▲3일차 노동조합 소개 및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입사자 모두가 열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교육에 임했으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육 분위기는 시종일관 뜨거웠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진행된 경영층 특강에서 이성민 대표이사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근무하길 당부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끝으로 현장에 배치된 기술직 신규 입사자들을 환영해주시고 현대ISC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하도록 응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입사자 명단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제강팀	김민찬	기계정비팀	김동현
	김천식		심준영
	유승윤		안성민
대형압연팀	이강주	물류지원팀	윤성훈
	강연재		고유명
	김동우		고재현
	김태훈		김동규
	문재성		김민규
	문현빈		김영민
	신창모		신윤철
	이주혁		이도훈
	임구민		이동섭
	김선일		이성웅
중형압연팀	박건희	축로팀	이현상
	유지수		전영준
	엄규철		제지현
	오인균		최용환
STS팀	이정민	축로팀	최종걸
	김영준		추경호
	고준혁		황현진
	소재욱		이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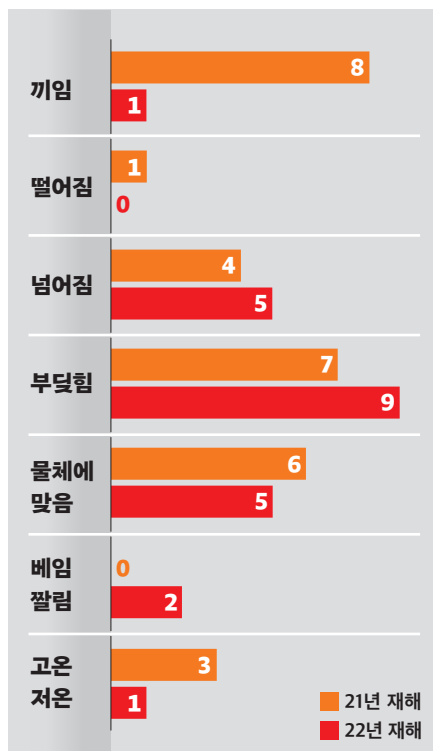
올해 1~7월 사이 재해 23건 발생

부딪힘 > 넘어짐 > 물체에 맞음 각별히 주의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 상반기에도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303건의 업무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20명이 숨졌습니다. 전년 동기(334건·340명)보다 20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건 가까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ISC 재해발생 유형(1~7월)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건(155명), 제조업이 92건(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39.4%)과 '끼임' 57명(1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유형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57.2%에 달했습니다. '물체에 맞음'은 32명(10.0%), '깔림·뒤집힘'은 27명(8.4%), 무너짐이나 화재·감전 등 '기타'는 58명(18.1%)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21년 1~7월 총 29건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22년 동기간에는 23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재해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준수와 불안전 행동 금지로 나와 동료의 안전을 지킵시다.

현대ISC 재해발생 현황(1~7월)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고	
21년도	휴업	5	1	0	1	0	0	1	2	외부+의무실
	비휴업	24	3	4	3	3	5	3	3	
	계	29	4	4	4	3	5	4	5	
22년도	휴업	5	0	0	1	1	2	0	1	외부+의무실
	비휴업	18	3	2	2	4	2	3	2	
	계	23	3	2	3	5	4	3	3	

ISC Notice

환경 개선 알림

휴게실 환경개선은 계속됩니다

뜨거운 여름이 한창인 우리 현장 곳곳에서는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비품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비품 교체 작업으로 현장 곳곳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이 교체 완료되어 기존 대비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비품 교체에 이어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교체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꾸준한 환경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재탄생하고 있는 휴게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ISC 임직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용 후 정리정돈도 잘 부탁드립니다.

